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는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위 공식 출범

치안서비스 성공 다짐... 이형규 위원장 등 초대위원들 임기 시작

전북도가 2일 자치경찰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할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일렷다. 전북도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와 도의회 등에서 추천한 7명으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위원장인 이형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우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전)군산경찰서장, 방준원 전)집재 경찰서장, 이종석 아

태마스스터대회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의 초대위원 임기가 시작됐다. 위원회 산하 사무국은 2과 6팀에 총 22명(일반직 12명, 경찰 10명)으로 운영되며, 전북도청 공영장동(1층)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5월 28일부터 사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총 4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심의·의결이 있었다. 보고 안건으로 위원들에 대한 자치경찰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설명 및 전북도 추진상황을 보고했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조기 안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3가지 안

건에 대한 심의결과, 올해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한 날짜로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방준원 위원을 선출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이끌어 지방자치의 효시인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안정·정착시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규 위원장은 "행정과 치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내 문화예술인 5억5000만원 추가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5억5,000만원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 5월 제38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등록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3억원, 문화예술 전문단체 재난극복지원사업 5,0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재난극복지원사업 2억원 등 3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

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등록예술인 1,316명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4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3억원은 지난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등록예술인 등 1,000여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단체 재난극복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공모 선

정한 전북도 문화예술 전문단체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적격여부를 재심사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 예술육성 재난극복지원사업'은 지난 2월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 선정된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총 60여 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성공사례로

김승수 전주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 혁신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진현, 조직위원장 이영용)가 주관하며 대령영속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참여와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해 우수한 정치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수여되는 상이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구현도, 성취도, 혁신과 급력, 창의성, 참신성, 자기개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추진 등 시민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낸 김 시장을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강남적 전면개발 아닌 문화·예술 통해 재생 성매매여성 자립 지원

집결지 내 건물들 하나씩 임대·매입해 소통 강화 물결서사 등 예술공간 조성

민선6기부터 모든 분야에 시민 참여 거버넌스 실천

물결서사(예술책방) ▲꽃밭의 미술관(예술작품 전시관) ▲노송너우스 박물관(미술사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인 '성평등전주'가 들어서 선미촌의 역사를 담은 상설 기록전시관과 여성인권 및 성평등 실현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폐자원을 가지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진기(지인) 재활용센터 다시봄이 구축돼 활기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시민들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생

산자라는 원칙 아래 민선6기부터 시정 모든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왔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다올마당을 통해 생태동물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등 전주시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 또 시민 속에서 답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식인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정책토론회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 방직 부지 개발사업 등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 변화의 힘은 시민단체, 여성단체, 행정, 유관기관 등이 모여 인권과 도시의 흔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끌고온 데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앞으로 선미촌을 인권과 평화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엄마! 물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응! 진안에 있는 용담호에서 진안군민이 청정하게 지켜준 덕분에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거야!

용담호

진안고원 진안군